

1 사법시험 폐지의 당위성

{ 법률에 의거 }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 [법률 제9747호, 2009.05.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 충분한 논의의 결과 }

사법시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995.01_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전원 도입 추진 → 1999.05_사법개혁 추
진위원회 설치 → 1999.12_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
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 → 2003.10_사법개혁위원회 출범 → 2005.05_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7.07_국회 통과(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

{ 국민과의 약속 }

지난 7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믿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법전원이 설치된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며,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20대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16.7.5)
- 사시존치 여부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 답변 중

Q.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A.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쉽사리 예전으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로스쿨이 도입되었는데, 단 50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를 통해서 법조인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 될 것이다.”

2 사법시험 존치 시 예상되는 피해

{ 학부교육의 황폐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학부생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돼 각자의 전공공부에 소홀,
결국 학부교육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즉, 사법시험 폐지의 원인이었던 ‘고시망국’이 재현될 것입니다.

{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막을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전원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법전원 수업을 등한시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법전원 자퇴로 인한 폐강 과목 증가, 법전원
설립 취지인 국제화, 특성화, 전문 법조인 양성 취지가 훼손될 것입니다.

{ 소수대학 출신의 독점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서울의 대형대학에서만
합격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 고시낭인의 발생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낭인의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 법조인의 이원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법조인과 그렇지 않은
법조인으로 이원화되어,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것입니다.

3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그 보완책이 될 수 없습니다.

Q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인가요?

A ■ 사법시험은 수험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합격률이 겨우 2.93%에 불과합니다.

- 1981~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19,367명) 중 고등학교(졸업, 재학, 퇴학) 학력 소지자는 0.1%(19명)
- 2006~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6,697명) 중 고등학교 학력소지자는 0.05%(3명)
※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만 사법고시 응시 가능, 제1차 시험에서 토익 점수 700점 이상 요구

A ■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고시원 비용 등의 생활비 외에도 월 14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렵더라도, 의지와 실력만 있다면,
법전원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체 · 경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선발인원과 장학금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및 장애인 등을 매년 입학정원의 6.37%(133명) 선발해 이들에게는 전액장학금 지급
(총 894명 선발('09~'15년) : 재학생 444명 등, 변호사 334명)

2.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하였습니다.

■ '16년 2학기부터 국공립 법전원은 5년간 등록금 동결, 사립 법전원은
학생 1인당 242만원을 인하하였습니다.

■ 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공립, 사립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율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인하 전	→	인하 후
국공립	10,442	동 결	10,442
사 립	19,195	242만원 인하	16,775

〈2015년 대비 등록금 인하액(단위:천원)〉

3. 타 전문대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질등록금 평균이 가장 낮습니다.

구 분	등록금	장 학 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15,596	6,131	38.1	9,465
의학전문대학원	15,792	3,217	19.7	12,574
경영전문대학원	19,568	3,479	22.2	16,089

〈2015년도 기준(단위:천원)〉

4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

{ 법학교육의 정상화 }

사법시험제도

지식습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지식습득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 법전원 도입으로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던 법학공부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

■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폐단 → 타전공 학부교육이 정상화

{ 출신대학의 확대 }

■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2.5배로 다양화되었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40개 → 법전원 입학자 출신대학 102개

■ 지방대학 출신 법조인의 배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학 출신 12.06% → 법전원 입학자 중 지방대학 출신 19.6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0명 인제 선발

{ 다양한 학위취득 출신 증가 }

■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입학한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위의 학위를 받고 입학한 자 20명

→ 법전원에 입학한 사람은 57명

{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 배출 }

■ 비법학 전공자가 증가하였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 12.42%

→ 법전원 입학자 중 비법학 출신 41.34%

{ 직역진출의 다양화 }

■ 송무시장 위주로 진출하던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 합격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19.5%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29.5%



5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

1

야간,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문호를 확대하겠습니다!

방통대 야간 법전원 개원 제안

- 주간 법전원의 절반 수준인 등록금
-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입학 전형

2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약 6.37%(133명)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특별전형 선발 인원을 입학정원의 10%(2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3

법과대학과의 상생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법과대학과 법전원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4

외부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법전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법전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법전원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개설해 법전원 현안사항을 비롯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04515)
전화 02-752-2037 홈페이지 <http://info.leet.or.kr>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2017년에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